

중·고등학생의 교복변형행동과 교복치수 맞춤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chool Uniform Modification Behavior and School Uniform Fitting Evaluation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최미화(Mi Wha Choi) · 손미영(Mi Young Son)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mprov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atisfaction on their uniforms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their better size systems. This study analyzed the purchasing and modification behavior, fitting evaluation, and size decision aspect of students. This study was surveyed middle and high schools students in Daegu C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percentage, *t*-test, chi-square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61.3% of the students interviewed have experienced to modify their uniforms. Since the unfittable size and non-fashionable design caused the students to modify their uniforms, it seems necessary to set up the various uniform sizes, as well as figuring out its aesthetic characteristic. Betwee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students with a uniform modification and students without a uniform modification, there were partially differences in fitting evaluation, and size decision.

주제어(Keywords) : 교복(school uniform), 교복 변형 행동(uniform modifications behavior), 맞춤새 평가(fitting evaluation), 교복 치수(uniform size)

I. 서론

청소년기의 중·고등학생은 급격한 신체변화와 생리적인 변화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아의식이 증대되어 자신의 외모와 의복에 대하여 관심이 높고[14], 의복을 통해 자신감을 획득하고, 개성을 추구하는 등 의복이 중·고등학생들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다[9]. 생활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교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복은 특성상 일반기성복과 다르게 디자인, 소재, 봉제 등이 통제된 상황에서 3년을 착용하며, 청소년기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현재의 패션 트렌드를 반영한 심미적 특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교복에 대한 불만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5]. 과거의 중·고등학생들은 교복을 오랜 기간 착용하기위해 자신의 신체보다 큰 치수의 교복을 구입하여 착용하였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개성적 표현으로 맞춤새에 따른 외관이 중요해지고 교복의 치수만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재 중·고등학생의 교복치수 체계를 조사한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통합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작은 치수는 중학생용으로 큰 치수는 고등학생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특히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의 신체적인 특성이 반영된 치수체

Corresponding Author : Mi Young Son,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Dongsung-dong, Chongro-gu, Seoul, Korea Tel: +82-2-3668-4641, Fax: +82-2-3668-4188, E-mail: pkt2000@knou.ac.kr

* 본 논문은 제 1저자(최미화)의 2011학년도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 본 논문은 2012년 대한가정학회 제65차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임.

계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교복착용 시 교복치수 맞음새에 불만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12, 23, 31]. 이러한 교복에 대한 치수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들은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하려는 행동으로 연결되고 있으며[19, 25],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생활지도 차원에서 과도한 교복 변형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교복변형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19]. 교복변형에 대한 생활지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의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학생들의 심리사회적 인요인을 파악하여 적합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29].

지금까지의 교복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13, 18, 27]와 교복에 대한 태도 분석에 관한 연구[6, 14], 그리고 교복의 착용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18, 21, 25, 26]가 대부분이며 교복치수에 대한 불만족을 개선시키기 위해 행하는 교복 변형을 치수 맞음새와 관련하여 연구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현재 이루어진 교복의 치수와 변형실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여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으며 남학생을 대상으로 치수 맞음새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교복은 청소년기의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 등을 통합적으로 반영하므로 남녀를 포함한 중·고등학생의 교복 변형행동과 교복치수 맞음새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복변형행동 및 치수 맞음새 등의 교복 착용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남녀 중고등학생들이 교복치수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교복치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들의 교복구매행동 및 교복변형행동, 교복치수 선택, 교복치수 맞음새 평가를 성별과 학교 급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실제적으로 교복변형 여부에 따라 교복치수 선택과 치수 맞음새 평가에서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의 특징과 의복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과도기적 시기이며, 청소년기에 대한 구분은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최근 연구경향에 의하면 학교제도에 의한 구분으로 청년 전기(13~16세), 청년 중기(17~19세), 청년 후기(20~23세)로 구분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중·고등학생을 의미한다[28].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은 신장, 체중, 세포 등의 양적인 발달과 구조와 기능면에서의 신체발육은 최고의 단계에 이르나 신체 전부분의 발달비율은 누구나 같지 않고 성별과 개

인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 즉 발육상태에 따라서 신체 형태의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며 성장속도가 감소되면서 신체비율은 성인과 거의 근접하게 되나 성인의 체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11].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생리적, 신체적 성장과 사회적, 정신적 성숙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이것은 의복 형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25]. 청소년기는 의복이나 외모를 사회에 적응시키는 수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큰 관심과 흥미를 나타낸다. 이 시기는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의복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족이 기분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의복이 주는 좋은 느낌이나 분위기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 받는 심리적 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난다[15].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의복은 자신감의 획득, 동년배 집단과의 동조, 사회적 승인을 위한 도구 및 개성을 추구하는 수단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착용하고 있는 의복이 그들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3]. 청소년기에 의복을 잘 착용한다는 것은 사회적 성취감을 획득하도록 도와주며 또래집단의 소속감과 자신감을 주어 행복감과 사기를 고양시키고 신체적 결함을 보상해 주는 역할을 한다[24]. 이처럼 청소년기는 의복에 대한 관심이 어느 시기보다도 높아지므로, 청소년들의 의복에 대한 만족도는 사회적 안락감 및 자신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교복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3]. 따라서 장시간 착용하는 교복을 변형하는 행동은 자기 표현과 사회적 승인을 위한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교복 치수

1) 교복치수 맞음새

청소년 교복과 관련된 선행연구[17, 19, 25]에서 중·고등학생들의 교복변형 이유를 살펴본 결과 교복 치수의 불만족이 변형의 이유로 많이 나타났다. 중·고등학생들이 착용하는 교복이 획일적인 디자인의 대량생산제품에 의생활을 의존하고 있어 교복의 외관은 맞음새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5].

Chung 외는 교복치수에서도 여자 중·고등학생은 청소년기의 신체발달과정의 성장기와 성숙기 초기단계로 개인에 따른 성장속도의 차이가 큰 시기이기 때문에 키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슴둘레를 변화시킨 한 가지 치수만 제작하지 말고 많은 학생이 속하는 키의 범위에서는 가슴둘레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치수 규격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 Kim은 여중생들의 교복착용 실태조사에서 교복치수가 전체적으로 너무 크게 설정되어 불만족스럽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복치수의 과도한 여유량 설정과 현재 몸이 가늘어 보이는 슬림라인의 밀착형(fit)을 선호하는 추세가 치수만족도에 반영된 결

과라고 하였다[7]. 이 밖에도 Lee는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Kim은 여중생을 대상으로, Kim은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복치수에 대한 불만족을 언급하였다[9, 13, 22].

이처럼 교복치수에 관한 불만은 1990년대 이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복 기성복화가 진행되면서부터 꾸준히 지적되어온 문제점으로 치수적합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청소년기 신체특성과 치수체계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며,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치수 맞춤새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2) 교복치수체계

중·고등학생의 기성 교복착용이 많아지면서 교복에 대한 치수 맞춤새가 부각되어 교복 치수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의 여중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제품 치수 조사결과 한국공업규격(KS) 치수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치수규격에 차이를 두지 않고 교복제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체별 사용하는 동일한 호칭에 대한 각 부위 제품치수가 각각 달랐고 호칭에 따른 증감분편차도 업체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7]. Lee의 연구에서도 중·고등학생 간의 치수 규격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으며 같은 치수체계에 따른 치수의 구분이 있을 뿐 체형적 특성에 따라 치수체계를 구분하지 않고 있었다[22]. 중학생들은 기준길이에 비해 가슴둘레 및 허리둘레에 기준을 두어 교복을 구매할 경우 길이 부위가 짧거나, 또는 신장에 맞추어 교복을 구입하게 되면 너비 및 둘레항목이 큰 교복을 구입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23]. 교복업체에서 사용하는 기준 부위는 상의인 재킷과 셔츠의 경우 가슴둘레-신장을, 하의는 허리둘레-신장을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호칭간의 간격은 신장 5cm, 가슴둘레 3cm, 허리둘레 2~4cm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최소 140cm부터 최고 190cm까지 12개의 치수로 설정하였다[22]. 성장기에 있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의 치수 맞춤새 향상을 위해 치수체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업체 간 동일한 호칭에 대한 제품치수의 차이가 있어 교복 구입 시 어려움이 따르고 있었다[18]. 이상의 연구들을 볼 때 기존 교복업체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복 치수는 치수설정에 있어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체형별 치수가 세분화 되어 있지 않은 점은 중·고등학생들의 교복치수에 대한 불만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교복 변형 행동

교복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착용하는 제복으로서 표식유별적인 목적 외에 교육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제복보다 중요하다. 교복 착용의 목적은 청소년기에 고조되는 필요 이상의 의복관심도를 막고, 착용자 자신이 학생 신

분을 명확히 인식하여 소속감과 공동의식을 고취함으로써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장려하기 위함이다[20]. 그러나 현재 교복은 학생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됨에 따라 편안함 보다는 불편한 의복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으며 개성표현, 유행과 같은 청소년의 관심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복으로서의 기능이 제한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대부분의 시간을 교복을 착용하는 상태로 보내고 있으므로 교복에 대해 불만족이 심화되고 있다[26].

교복에 대한 불만족은 교복을 변형하여 입으려는 행동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Hwang 외의 연구에 의하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교복변형을 많이 하였으며 남녀 학생 모두 교복변형은 독특하고 개성적인 이미지 선호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3]. 또한 의복의 과시성이나 사회적 승인을 추구할수록 교복을 변형하여 입었으며, 교복선호도요인과 의복정숙성요인이 교복변형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Lee의 연구에서 교복변형과 교복 만족도 관계에서 교복만족도 하위요인 디자인 만족감, 품위 및 안락감, 관리성 중 품위 및 안락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복 변형을 함으로써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교복변형으로 자신의 체형 결점을 감출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19]. 또한 청소년들은 교복도 현대 사회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에 맞게 변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복 변형에 대해 긍정적이고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교복변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ee의 연구에서는 1년간 교복을 변형한 응답자가 52.7% [19], Lee의 연구에서는 64.9% [25], Kwon 외의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67.3% [17], Lee의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3.3% [22]가 교복을 변형(수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변형(수선)의 이유를 살펴보면 Kim은 교복치수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선행동을 시도한다고 하였으며, Kwon 외의 연구에서 수선행동을 하는 이유로 ‘치수가 맞지 않아서’가 38.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9, 17]. Lim의 연구에서도 중·고등학생의 교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불만족스러운 이유로 활동하기 불편하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조사 되었으며[27], Lee의 연구에서도 ‘자기 체형에 맞게 고치면 키가 커 보이고 날씬해 보이므로’, ‘교복이 너무 크게 나와서’의 순으로 교복을 변형하였다[25]. 또한 Kim의 연구에서는 교복치수에 있어 불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낸 부위는 변형률이 높은 부위와 일치하고 있으며, 교복을 변형하지 않고 착용하면 치수가 커서 불만족을 느낀다고 하였다. Lee 외는 교복치수적합성 향상을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7, 23]. 이러한 결과들을 살펴볼 때 중·고등학생들은 교복이 체형에 맞지 않거나, 치수가 너무 크게 나오는 등 교복에 대한 맞춤새 및 치수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으로 수선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형경험 또한 높게 나타나 변형경험 및 변형부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교복 치수 맞춤새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중·고등학생의 교복구매 및 변형행동을 성별 및 학교 급별 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다.

연구문제2. 중·고등학생의 교복치수 선택 및 맞춤새 평가를 성별 및 학교 급별, 변형여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다.

2. 측정방법

1) 설문지 구성 및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는 남녀 중·고등학생의 교복착용실태를 파악하여 교복 변형행동과 교복 치수 맞춤새 평가의 차이를 알아보고 성별 및 학교 급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였다[7, 9, 10, 12, 22, 25]. 설문지 내용은 총 24문항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문항과 교복의 구입행태에 관한 6문항, 교복 변형행동에 관한 7문항, 교복 치수에 관한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복변형행동을 '구입한 교복을 자기 자신의 기호에 맞게 다른 형태로 변형하는 태도'라 작위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치수맞음새 또한 '판매된 교복을 착용하였을 때 착의자가 느끼는 맞춤새 적합정도'로 작위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고 실제 평가에서 '작다'에서 '크다', '좁다'에서 '넓다', '짧다'에서 '길다' 순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해 2010년 12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대구시의 4개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6개 학교와 고등학교 6개 학교의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 5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1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t*-test, chi-square test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는 총 511명으로 중학생 263명 51.5%, 고등학생 248명 48.5%로 중학생이 조금 더 많았으며, 학년 분포를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90명(17.6%), 중학교 2학년 91명(17.8%), 중학교 3학년 82명(16.0%), 고등학교 1학년 90명(17.6%), 고등학교 2학년 88명(17.2%), 고등학교 3학년 70명(13.7%)로 고등학교 3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조금 적게 나타났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학생 259명 50.7%, 여학생 252명 49.3%이었다.

2.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매행동 및 변형행동

1) 중·고등학생의 교복구매행동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방법은 응답자의 83.4%에 해당하는 426명이 이미 만들어진 기성교복을 구입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맞춤다는 경우는 14.1%로 나타났으며 물려받는 경우 2.2%, 그 외에 맞춤복을 포함한 기타의 경우 0.4%로 나타나 교복의 기성복화 추세가 두드러짐을 반영하였다.

중·고등학교 남녀학생들에게 교복 상의와 하의를 재 구입 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중학생은 72.2%(190명), 고등학생은 66.9%(166명)가 교복 상의를 재구입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교복 하의는 중학생은 48.3%(127명), 고등학생은 62.1%(154명)가 재 구입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중·고등학생이 구입한 교복 브랜드의 선택 동기를 Table 1과 같이 남녀 중학생과 남녀 고등학생에 따라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학교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른 브랜드 선택 동기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브랜드 선택 동기에 대해 중학교 남학생은 기대빈도보다 '매장이 가까워서', '소재가 좋아서'의 관측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여학생은 기대빈도보다 '디자인이 세련되어서', '친구나 부모님의 조언으로'의 관측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른 브랜드 선택 동기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브랜드 선택 동기에 대한 고등학교 남학생은 '매장이 가까워서'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여학생은 '디자인이 세련되어서', '소재가 좋아서'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디자인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남학생은 교복 브랜드 선택 시 편의를 추구하여 매장이 가까운 브랜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복변형행동

중·고등학생의 착용 교복에 대한 교복변형행동을 조사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전체 61.3%가 교복 변형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교복 변형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won 외의 연구에서 여고생의 67.3%가 교복변형을 한 경험이 있다

Table 1.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election motive of the uniform brand (N = 511)

Brand selection motives	Middle school		High school	
	Boys	Girls	Boys	Girls
	<i>n</i> (e.x.)	<i>n</i> (e.x.)	<i>n</i> (e.x.)	<i>n</i> (e.x.)
Fashionable design	10 (13)	16 (13)	14 (22.2)	43 (17.3)
Fabric	17 (11)	5 (11)	19 (15.0)	29 (11.7)
Price	5 (6.5)	8 (6.5)	10 (6.7)	13 (5.2)
Advertisement by my favorite star	8 (6.5)	5 (6.5)	4 (6.2)	12 (4.8)
Good fit	2 (3.5)	5 (3.5)	3 (8.3)	16 (6.5)
Brand name	23 (22.4)	22 (22.6)	17 (18.6)	19 (17.4)
Friends or parents' advice	19 (25.9)	33 (26.1)	19 (19.6)	19 (18.4)
Store location	26 (21.4)	17 (21.6)	26 (17.0)	7 (16.0)
Easy to buy	7 (8.5)	10 (8.5)	10 (7.7)	5 (7.3)
Etc.	14 (12.5)	11 (12.5)	6 (6.7)	7 (6.3)
Total	131	132	128	120
χ^2	17.161*		31.947***	

Note. e.x. = expected frequencies

* $p < .05$, *** $p < .001$

고 하였으며[17], Hyun 외의 연구에서 남학생(56.8%)보다 여학생(72.2%)이 교복변형경험이 더 많았고[4], 남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교복변형을 더 많이 하였으며 Hwang 외의 연구에서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교복 변형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3].

중·고등학생의 변형경험 유무에 따라 교복변형행동의 주된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Table 3, 교복변형을 한 이유는 '치수가 맞지 않아서'로 나타났으며, 교복 변형이유에 대한 중·고등학교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학교 남학생은 '치수가 맞지 않아서'가 기대빈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여학생은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기스타일에 맞게 고치려고'에서 기대빈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

교 남학생은 '활동하는데 불편해서'와 '땀거나 찢어져서', 고등학교 여학생은 '유행이므로',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기대빈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Kim 외와 Kwon 외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Chung 외의 연구 결과에서도 교복 변형의 이유를 미적, 심리적, 실용적 측면으로 분류하였을 때 실용적인 면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1, 8, 17]. 교복변형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규제 때문에'와 '번거로워서'라는 이유가 높게 나타났다. 이 또한 선행연구 Wee 외의 연구와 Kwon 외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17, 29].

교복의 각 부위별 변형을 Table 4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상의 변형에서 차이가 나타난 부위로는 재킷길이와 어깨너비이며,

Table 2.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experience of the uniform modification

School		<i>n</i> (%)	Modify	Not modify	χ^2
			<i>n</i> (%)	<i>n</i> (%)	
Middle school	Middle school	<i>n</i> (%)	128 (48.7)	135 (51.3)	36.153***
		e.x.	161.1	101.9	
	High school	<i>n</i> (%)	185 (74.6)	63 (25.4)	
		e.x.	151.9	96.1	
Total (%)			313 (61.3)	198 (38.7)	
Middle school	Boys	<i>n</i> (e.x.)	54 (63.8)	77 (67.2)	5.795***
	Girls	<i>n</i> (e.x.)	74 (64.2)	58 (67.8)	
	Total		128	135	
High school	Boys	<i>n</i> (e.x.)	91 (95.5)	37 (32.5)	1.713
	Girls	<i>n</i> (e.x.)	94 (89.5)	26 (30.5)	
	Total		185	63	

Note. e.x. = expected frequencies

* $p < .05$, *** $p < .001$

Table 3.
The reasons for school uniform modification behavior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Reasons for modification(Modify)	Middle school		High school	
	Boys	Girls	Boys	Girls
	<i>n</i> (<i>e.x.</i>)	<i>n</i> (<i>e.x.</i>)	<i>n</i> (<i>e.x.</i>)	<i>n</i> (<i>e.x.</i>)
It was trend	2 (2.1)	3 (2.9)	7 (9.3)	12 (9.7)
Did not like the design	3 (6.8)	13 (9.2)	6 (11.3)	17 (11.7)
Size did not fit	29 (25.2)	30 (33.8)	34 (34.4)	36 (35.6)
Uncomfortable to act	7 (6.8)	9 (9.2)	13 (9.3)	6 (9.7)
To fix his style to suit	7 (9.8)	16 (13.2)	19 (19.7)	21 (20.3)
Worn or Torn	7 (3.0)	0 (4.0)	10 (5.4)	1 (5.6)
Etc.	0 (1.3)	3 (1.7)	2 (1.5)	1 (1.5)
Total	129		185	
χ^2	16.966**		17.827**	

Reasons for no modification (Not modify)	Middle school		High school	
	Boys	Girls	Boys	Girls
	<i>n</i> (<i>e.x.</i>)	<i>n</i> (<i>e.x.</i>)	<i>n</i> (<i>e.x.</i>)	<i>n</i> (<i>e.x.</i>)
Size did fit	15 (13.6)	9 (10.4)	5 (7.6)	8 (5.4)
Because of complex	24 (23.3)	17 (17.7)	19 (16.4)	9 (11.6)
Uncomfortable to act	4 (2.8)	1 (2.2)	3 (1.8)	0 (1.2)
Because of regulatory	26 (31.2)	29 (23.8)	7 (7.6)	6 (5.4)
Considering the growing body	7 (5.1)	3 (3.9)	3 (3.5)	3 (2.5)
Total	134		63	
χ^2	5.111		5.590	

Note. *e.x.* = expected frequencies

** $p < .01$

중·고등학생 간의 교복 변형 부위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소매통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줄임이 많았으며, 여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은 재킷길이와 소매길이의 줄임이 그리고 중학생은 재킷앞판, 허리둘레, 어깨너

비, 소매통의 줄임이 많았다. Wee 외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복을 늘이기 보다는 줄이는 경향을 볼 수 있다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 하의 변형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모든 항목에서 줄임이 많았으며 여

Table 4.
School uniform modification by parts

		Middle school boys (<i>n</i> = 54)			High school boys (<i>n</i> = 91)		
		Lengthening	Shortening	Non	Lengthening	Shortening	Non
		<i>n</i> (<i>e.x.</i>)	<i>n</i> (<i>e.x.</i>)	<i>n</i> (<i>e.x.</i>)	<i>n</i> (<i>e.x.</i>)	<i>n</i> (<i>e.x.</i>)	<i>n</i> (<i>e.x.</i>)
Jacket modification	Jacket length	1 (1.5)	16 (23.8)	37 (28.7)	3 (2.5)	48 (40.2)	40 (48.3)
	Jacket chest width	.	10 (12.3)	44 (41.7)	.	23 (20.7)	68 (70.3)
	Jacket back width	.	10 (12.7)	44 (41.3)	.	24 (21.3)	67 (69.7)
	Waist girth	.	10 (13.8)	44 (39.8)	1 (0.6)	27 (23.2)	63 (67.2)
	Biacromial breadth	1 (1.5)	7 (7.8)	46 (44.7)	3 (2.5)	14 (13.2)	74 (75.3)
	Arm length	2 (3.7)	13 (14.2)	39 (36.1)	8 (6.3)	25 (23.8)	58 (60.9)
	Sleeve breadth	.	11 (10.4)	43 (42.5)	3 (1.9)	17 (17.6)	71 (71.5)
	χ^2	465.048***					
Slacks modification	Waist girth	3 (2.2)	7 (10.4)	44 (41.3)	3 (3.8)	21 (17.6)	67 (69.7)
	Hip girth	1 (0.4)	3 (5.6)	50 (48.0)	.	12 (9.4)	79 (81.0)
	Thigh circumference	.	4 (7.1)	50 (46.6)	1 (0.6)	15 (11.9)	75 (78.4)
	Slacks length	20 (14.9)	21 (22.7)	13 (16.4)	20 (25.1)	40 (38.3)	31 (27.6)
	Slacks breadth	1 (1.5)	20 (23.5)	33 (29.0)	3 (2.5)	43 (39.5)	45 (49.0)
	χ^2	90.924***					

	Middle school girls (n = 74)			High school girls (n = 94)			
	Lengthening	Shortening	Non	Lengthening	Shortening	Non	
	n (e.x.)	n (e.x.)	n (e.x.)	n (e.x.)	n (e.x.)	n (e.x.)	
Jacket modification	Jacket length	2 (1.8)	15 (21.6)	57 (50.7)	2 (2.2)	34 (27.4)	58 (64.3)
	Jacket chest width	.	19 (18.5)	55 (54.2)	3 (1.7)	23 (23.5)	68 (68.8)
	Jacket back width	.	17 (15.0)	57 (57.3)	4 (2.2)	17 (19.0)	73 (72.7)
	Waist girth	1 (0.4)	25 (22.9)	48 (50.7)	.	27 (29.1)	67 (64.3)
	Biacromial breadth	.	10 (7.5)	64 (66.5)	.	7 (9.5)	87 (84.5)
	Arm length	1 (2.2)	11 (15.4)	62 (56.4)	4 (2.8)	24 (19.6)	66 (71.6)
	Sleeve breadth	1 (0.4)	17 (13.2)	56 (60.3)	.	13 (16.8)	81 (76.7)
χ^2	465.048***						
Skirt modification	Waist girth	1 (2.2)	27 (23.3)	46 (48.5)	4 (2.8)	26 (29.7)	64 (61.5)
	Hip girth	.	7 (5.3)	67 (68.7)	.	5 (6.7)	89 (87.3)
	Skirt length	6 (4.4)	54 (51.5)	14 (18.1)	4 (5.6)	63 (65.5)	27 (22.9)
	Skirt width	1 (0.4)	7 (14.1)	66 (59.5)	.	25 (17.9)	69 (75.5)
	Pleats	1 (0.9)	6 (7.0)	67 (65.1)	1 (1.1)	10 (9.0)	83 (83.9)
χ^2	179.102***						

* p < .05

Modification parts of jacket		Boys n (e.x.)	Girls n (e.x.)	χ^2
Jacket length	Lengthening	4 (3.7)	4 (4.3)	7.864*
	Shortening	64 (52.3)	49 (60.7)	
	Non	77 (88.9)	115 (103.1)	
Jacket chest width	Lengthening	0 (1.4)	3 (1.6)	2.921
	Shortening	33 (34.7)	42 (40.3)	
	Non	112 (108.2)	123 (126.1)	
Jacket back width	Lengthening	0 (1.9)	4 (2.1)	3.829
	Shortening	34 (31.5)	34 (36.5)	
	Non	111 (111.6)	130 (129.4)	
Waist girth	Lengthening	1 (0.9)	1 (1.1)	1.132
	Shortening	37 (41.2)	52 (47.8)	
	Non	107 (102.8)	115 (119.2)	
Biacromial breadth	Lengthening	4 (1.9)	0 (2.1)	6.311*
	Shortening	21 (17.6)	17 (20.4)	
	Non	120 (125.5)	151 (145.5)	
Arm length	Lengthening	10 (6.9)	5 (8.1)	4.395
	Shortening	38 (33.8)	35 (39.2)	
	Non	97 (104.2)	128 (120.8)	
Sleeve breadth	Lengthening	3 (1.9)	1 (2.1)	1.495
	Shortening	28 (26.9)	30 (31.1)	
	Non	114 (116.3)	137 (134.7)	

Note. e.x. = expected frequencies ; . = n (e.x.) = 0

*** p < .001

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은 스커트 폭과 스커트주름의 줄임이 중학생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스커트길이의 줄임이 많았다[29]. Kim의 교복 수선 부위 조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Koh 외의 연구에서도 스커트 폭과 재킷의 품 및 길이를 줄이는 변형이 많은 결과와도 일치한다[10, 16]. 이는 여고생들은 매우 마른 체형을 자신의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로 선호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몸이 불편하더라도 날씬하게 보이기 위

해서 교복을 수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으며, 의복의 기능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심미적인 자기표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0, 29].

3. 중 · 고등학생의 교복치수 선택 및 맞춤새 평가

1) 중 · 고등학생의 교복치수 선택

Table 5. Important parts to consider in buying of school uniform jacket according to school level and modification behavior

An important parts of jacket	Modify (n = 313)	Not modify (n = 198)	Boys		Girls	
			Modify (n = 145)	Not modify (n = 114)	Modify (n = 168)	Not modify (n = 84)
			n (e.x.)	n (e.x.)	n (e.x.)	n (e.x.)
Biacromial breadth	63 (64.3)	42 (40.7)	33 (32.5)	25 (25.5)	30 (31.3)	17 (15.7)
Bust girth	80 (70.4)	35 (44.6)	25 (21.3)	13 (16.7)	55 (51.3)	22 (25.7)
Waist girth	87 (93.1)	65 (58.9)	26 (33.0)	33 (26.0)	61 (62.0)	32 (31.0)
Arm length	39 (39.8)	26 (25.2)	27 (26.3)	20 (20.7)	12 (12.0)	6 (6.0)
Jacket length	44 (45.3)	30 (28.7)	34 (31.9)	23 (25.1)	10 (11.3)	7 (5.7)
Total	511		259		252	
χ^2	4.597		5.254		1.475	

Note. e.x. = expected frequencies

Table 6. Important parts to consider in buying school uniform slacks/skirt according to school level and modification behavior

An important parts of slacks	Boys			An important parts of skirt	Girls		
	Modify (n = 145)	Not modify (n = 114)	Total (n = 259)		Modify (n = 168)	Not modify (n = 84)	Total (n = 252)
	n (e.x.)	n (e.x.)	n (e.x.)		n (e.x.)	n (e.x.)	n (e.x.)
Waist girth	48 (47.0)	36 (37.0)	84 (84.0)	Waist girth	79 (82.7)	45 (41.3)	124 (124.0)
Hip girth	20 (21.3)	18 (16.7)	38 (38.0)	Hip girth	27 (24.7)	10 (12.3)	37 (37.0)
Crotch length	15 (15.7)	13 (12.3)	28 (28.0)	Skirt length	59 (57.3)	27 (28.7)	86 (86.0)
Slacks length	22 (27.4)	27 (21.6)	49 (49.0)	Skirt hem circumference	3 (3.3)	2 (1.7)	5 (5.0)
Slacks hem circumference	40 (33.6)	20 (26.4)	60 (60.0)				
χ^2	5.508			χ^2	1.395		

Note. e.x. = expected frequencies

중·고등학생의 착용교복 치수선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교복치수 선택방법은 대부분의 남녀 중·고등학생이 직접 입어보고 선택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교복의 치수만으로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지 조사한 결과 69%가 넘는 남녀 중·고등학생들이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5는 중·고등학생의 교복변형 유무에 따른 교복 상의 구입 시 중요시하는 부위에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복변형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복변형을 한 중·고등학생들은 가슴둘레에서 기대빈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교복변형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허리둘레에서 기대빈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 중 교복을 변형한 학생들은 가슴둘레를 변형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허리둘레와 어깨너비, 허리둘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복변형을 한 학생들은 가슴둘레를 교복변형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허리둘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6은 중·고등학생의 교복변형 유무에 따른 교복

하의 구입 시 중요시 하는 부위에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복변형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복변형을 한 남학생은 바지 선택 시 중요시하는 신체부위로는 허리둘레와 바지밑단둘레로 나타났으며, 교복변형을 하지 않은 남학생은 바지 길이에서 기대빈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교복변형을 한 학생은 엉덩이 둘레에서 기대빈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교복변형을 하지 않은 학생은 허리둘레에서 높게 나타났다. Kim의 선행연구에서 여고생의 스커트 구입 시 1순위가 허리둘레(53.4%)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2순위는 스커트 길이, 3순위는 엉덩이둘레로 나타나 본 연구의 여학생 스커트 구입 시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과와 유사하였다[9]. 결과적으로 교복변형을 한 남학생과 여학생은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둘레 항목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2) 중·고등학생의 교복치수 맞춤세 평가

Table 7은 중·고등학생들의 교복변형행동에 따라 교복

Table 7.
Jacket fitting evaluation according to school level and modification behavior

Parts of jacket	Modify (n = 313)	Not modify (n = 198)	t	Boys		t	Girls		t
				Modify (n = 145)	Not modify (n = 114)		Modify (n = 168)	Not modify (n = 84)	
				M (SD)	M (SD)		M (SD)	M (SD)	
Jacket length	3.09 (0.805)	3.18 (0.715)	-1.200	3.17 (0.828)	3.21 (0.770)	-0.379	3.02 (0.781)	3.13 (0.636)	-1.089
Jacket chest width	3.11 (0.764)	3.20 (0.666)	-1.337	3.18 (0.714)	3.19 (0.608)	-0.163	3.05 (0.803)	3.20 (0.741)	-1.480
Jacket back width	3.14 (0.693)	3.18 (0.594)	-0.692	3.19 (0.645)	3.16 (0.573)	0.368	3.10 (0.731)	3.21 (0.622)	-1.214
Waist girth	3.26 (0.731)	3.31 (0.699)	-0.707	3.30 (0.668)	3.25 (0.558)	0.654	3.23 (0.781)	3.39 (0.850)	-1.494
Biacromial breadth	3.13 (0.695)	3.25 (0.593)	-2.088*	3.08 (0.698)	3.25 (0.577)	-2.202*	3.17 (0.692)	3.25 (0.618)	-0.866
Arm length	2.88 (0.781)	2.99 (0.716)	-1.741	2.86 (0.742)	2.96 (0.664)	-1.159	2.89 (0.815)	3.04 (0.783)	-1.384
Sleeve breadth	3.11 (0.694)	3.20 (0.676)	-1.497	3.03 (0.582)	3.25 (0.577)	-3.029**	3.17 (0.774)	3.13 (0.788)	0.400

* p < .05, ** p < .01

Table 8.
Slacks/Skirt fitting evaluation according to school level and modification behavior

Parts of slacks	Boys			Parts of skirt	Girls		
	Modify (n = 145)	Not modify (n = 114)	Total (n = 259)		Modify (n = 168)	Not modify (n = 84)	Total (n = 252)
	M (SD)	M (SD)	t		M (SD)	M (SD)	t
Waist girth	3.21 (0.666)	3.25 (0.659)	-0.467	Waist circumference	3.34 (0.757)	3.23 (0.827)	1.084
Hip girth	3.03 (0.506)	3.11 (0.504)	-1.120	Hip circumference	3.15 (0.629)	3.08 (0.542)	0.889
Thigh girth	3.16 (0.609)	3.22 (0.591)	-0.806	Skirt length	3.33 (0.837)	3.31 (0.864)	0.158
Crotch length	3.14 (0.522)	3.14 (0.578)	-0.035	Skirt width	3.33 (0.771)	3.25 (0.692)	0.836
Slacks length	3.05 (0.649)	3.18 (0.694)	-1.518				
Slacks breadth	3.44 (0.807)	3.37 (0.655)	0.783				

재킷 치수 맞춤새에 차이가 있는지 t-test를 실시하여 알아 보았다. 중·고등학생의 교복변형행동 유무에 따라 재킷 치수 맞춤새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부위로는 어깨너비(p < .05)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변형행동 유무에 따라 어깨너비(p < .05), 소매통(p < .01)부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변형행동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은 교복 재킷치수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복변형을 한 적이 있는 학생들보다 교복변형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교복 재킷치수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 교복 재킷이 크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크며, 교복변형행동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번거로워서 교복변형을 하지 않는 이유와 일치하였으며, 맞춤새에 대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Table 8은 중·고등학생들의 교복변형행동에 따라 교복하의 치수 맞춤새에 차이가 있는지 t-test를 실시하여 알아 보았다. 바지의 경우 변형 경험행동에 따라 바지 치수 맞춤

새 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교복 바지 치수 맞춤새에서 교복변형행동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바지가 크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는 Lee의 연구에서 고등학생은 평균 3.21로 바지치수가 약간 크다고 느끼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21]. 여학생 스커트의 경우도 교복 변형경험 행동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변형행동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스커트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Lee의 연구에서 스커트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평균 3.19로 약간 큰 편으로 인식한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Kim 외의 연구에서도 스커트의 대부분 부위에서 크게 평가하고 있으며 치수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21].

V. 결론

최근 중·고등학생의 표준화된 치수체계가 미흡한 상황

에서 중·고등학생들이 교복의 맞춤새를 중시하면서 교복변형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의 교복만족도를 높이고 그리고 교복치수 체계의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생의 착용 교복 구입 행태를 조사한 결과, 교복 구입은 대부분 브랜드 교복을 기성복 형태로 구입하였으며, 구입한 브랜드의 선택 동기는 중·고등학교 남학생은 '매장이 가까워서', 중·고등학교 여학생은 '디자인이 세련되어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디자인에 중점을 두었다. 둘째, 중·고등학생의 착용교복에 대한 교복변형 행동을 조사한 결과 전체 61.3%가 교복변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변형 경험이 더 많았다.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상의 변형에서 차이가 나타난 부위로는 재킷길이와 어깨너비이며, 중·고등학생 간의 교복 변형 부위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소매통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줄임이 많았으며, 여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은 재킷길이와 소매길이의 줄임이 그리고 중학생은 재킷앞폭, 허리둘레, 어깨너비, 소매통의 줄임이 많았다. 하의 변형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모든 항목에서 줄임이 많았으며 여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은 스커트 폭과 스커트주름의 줄임이 중학생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스커트길이의 줄임이 많았다. 변형 이유는 교복 치수 맞춤새와 디자인에 대한 불만이 주된 이유이었으므로 기성 교복 치수체계의 다양화 및 심미적 특성 파악이 필요하다. 셋째, 중·고등학생의 착용교복 치수선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교복의 치수만으로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을 나타냈다. 교복 상의 치수선택의 기준 부위로 교복변형을 한 학생들은 가슴둘레를 교복변형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허리둘레를 중요시하며, 바지의 경우 교복변형을 한 학생들은 바지 길이와 바지 밑단둘레를 중요시하고, 스커트의 경우 변형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엉덩이둘레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넷째, 교복변형과 교복 치수 맞춤새 평가에 대한 조사 결과 재킷의 경우 전체적으로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복변형을 한 적이 있는 학생들보다 교복변형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교복 재킷치수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교복 하의 인 바지와 스커트의 경우 변형경험행동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치수 맞춤새 평가를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중·고등학생들의 교복 치수 변형과 교복치수에 대한 불만족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교복의 선택이나 교복 변형경험, 교복의 변형 부위, 치수선택의 중요부위, 치수 맞춤새 등에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의 학교 급간에 따른 교복 치수의 세분화가 필요하며, 또한 체형별 교복 치수가 현재보다는 더 세분화가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의복의 기능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심미적인 차원에서의 자기표현뿐만 아니라 성장기에 적합한 의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필요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 결과는 교복업체가 현재 교복치수체계를 개선하는데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대구지역 중·고등학생들로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거나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연구대상을 우리나라 전체 지역의 중·고등학생들로 확대하여 조사·분석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교복변형과 교복치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비교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References

1. Chung, H. K., & Kim, S. H. (2004). A study on school uniform and ornaments behaviors of high school girl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2(1), 135-150.
2. Chung, H. W., & Jeoung, I. S. (2005). Evaluative criteria and modification of girls' school uniforms: Focused on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Inche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Industry*, 7(2), 179-186.
3. Hwang, J. S., Ahn, M. H., Yong, Y. J., & Yu, S. Y. (2002). A comparison of school uniform image preferences and modifications of school uniform in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Industry*, 4(3), 243-247.
4. Hyun, E. K., Kang, M. H., & Nam, Y. J. (2008). A study on middle and high boy's and girls' uniform wearing condi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2(8), 1190-1201.
5. Jang, H. K., & Kim, I. S. (1999). Classification of high school girls' body shapes (Part I): Classification of frontal body shap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3(6), 876-885.
6. Jeon, C. R., & Kim, Y. S. (2007). Uniform modification and fashion accessory wearing according to attitudes toward uniform of high

-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s*, 57(2), 132-142.
7. Kim, D. H. (2000). *A Study on fitness of middle school girl's uniform in consideration of growth rat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8. Kim, D. H., & Kim, I. S. (2004). A study on sizing system and growth-allowance measure for middle-school girl's school uniform according to their body typ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8(11), 1524-1535.
 9. Kim, H. J. (2001). *A study on the alternation and size, uniforms satisfaction of girls high school students' uniforms in Jeju*.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10. Kim, H. K. (2008). *A study on school uniform metamorphosis behavior and skirt ease and length followed by high school girl students' satisfaction for school uniform*.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11. Kim, H. K., Kwon, S. H., & Suh, C. Y. (1994). Development of the dress form for high school girls through analyzing somatotyp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18(1), 130-139.
 12. Kim, H. R. (1994). *A study of the sizing System for the school uniform*.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13. Kim, H. S. (2001). *A study on the degree of contentment with the design of girls' school unifor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14. Kim, Y. H. (1991). *A study on middle school girl's attitude towards school unifor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15. Koh, A. R., & Kim, Y. J. (1996). The effects of egocentrism, self - consciousness, body cathexis on adolescence cloth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0(4), 667-681.
 16. Koh, A. R., Kim, Y. J., & Shim, J. E. (1999). Korean female adolescents' attitude toward school uniform as related to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clothing attitudes. *Yonsei Journal of Human Ecology*, 13, 31-41.
 17. Kwon, S. H., & Kim, H. J. (2002). A study on the size of the altered school uniforms of high school girls in Cheju and the level of their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1(4), 401-413.
 18. Lee, H. J. (2006).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fitness of sizing system and satisfaction for fall and winter school uniform.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4(1), 48-63.
 19. Lee, H. K. (2000). *A study on the alteration and improvement of school uniforms: focused on girls high school students' uniforms in Seoul*.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 Lee, I. J. (199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uniform and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16(1), 85-96.
 21. Lee, J. M. (2007). *Study on comparison of actual status and satisfaction of school uniform wearing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22. Lee, K. M. (2003). *A study on sizing system for the school uniforms of middle-school boy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23. Lee, K. M., Choi, H. S., & Kang, Y. S. (2004). A study on sizing system for the school uniforms of middle-school boy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8(1), 119-130.
 24. Lee, O. H., & Kang, Y. E. (1999). School uniform satisfaction and preference according to level of clothing involve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6), 139-153.
 25. Lee, S. E. (2001). *High school students' body images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uniform: Centering around coeducational schools in Seoul*.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26. Lee, Y. K., Lee, H. J., & Han, Y. S. (2006). The clothing behavior, school uniform satisfactions and school uniform modification behavior of adolescen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8(3), 133-148.
 27. Lim, J. H. (2004). *High school girls' satisfaction level*

- and design preference of school unifor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28. Park, H. E. (2007). *The Analysis of teachers' and students' attitude toward uniform transformation of female high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29. Wee, E. H., & Kwon, Y. M. (2009). A Study on school uniform reforming behavior in relation to body image: In the case of high school girl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10), 73-85.
30. Won, K. H. (1998). *A Study on middle school girls' somatotype and the standardization of school-uniform size*.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접 수 일 : 2012년 3월 8일
심사시작일 : 2012년 6월 8일
게재확정일 : 2012년 8월 29일